



옛 선비의 고고한 자태가 돋보이는 조흥동류 한량무 <회상>

남성무의 신기원 이룩한 趙興東의 춤맥

글_이세기 소설가·전 대한매일 논설위원

조흥동(趙興東)은 어디서나 자신의 실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무대를 보면 그 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이 마음속 깊이 고여 있다가 손끝과 발끝에서 침향(沈香)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춤을 추는 예인이다. 특히 그의 한량무는 멋과 풍류, 사동팔달의 춤사위를 적절히 안배하여 남성적인 여유와 기품으로 춤춘다. 오랜 체관을 거쳐 자신의 명무를 성취했으며 그는 우리 무용계를 이끄는 든든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다.

백색 도포에 검은 갓, 술띠와 갓신, 큰 부채로 얼굴을 가린 조흥동류 한량무(閑良舞)는 한 선비가 자신의 지난날을 허심탄회로 돌아보는 춤이다. 일명 〈회상(回想)〉으로 지칭되는 이 춤은 깨끗하고 고결한 선비의 내면을 탄평하고 사심 없이 그리고 있다. 이는 해방 전 신무용의 선각자인 조택원이 춤추었고 '몸은 비록 늙어져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身老心不老)'는 제목으로 정인방이 표주박에 지팡이를 짚고 신선처럼 춘 바 있다. 조흥동은 이를 당당한 장부의 기상으로 다듬어서 독수리처럼 학처럼 춤추면서 힘찬 도약과 현란한 발사위를 구사하고 춤에서의 대칭과 비대칭, 사선과 곡선, 나선 등을 모든 장면에서 절묘한 균형으로 연출해 내고 있다. 이때의 그의 표정은 차갑고도 따뜻한 양면성과 희로애락을 딛고 일어난 선비가 머언 장래를 꿈꾸는 정결한 춤으로 가꾼 것이 특징이다.

본래의 한량무는 굿거리와 자진모리로 구성한 데 비해 조흥동의 〈회상〉은 청송곡을 화두삼아 진양조, 중중모리, 옛모리, 자진모리를 거쳐 다시 청송곡으로 환원된다. 진행과정은 조명이 켜지면 무대 측면에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 사나이의 들끓는 열정과 자유분방 등 젊은 날의 시속취(時俗趣)를 떨쳐버린 채 군자삼락을 엿가르다가 맨 끝 장면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수미쌍관(首尾雙關)의 무순이 시적이다.

그의 춤들은 이처럼 치밀한 구도를 형성한다. 춤 속에는 무심이 있고 무심중에 감동을 유발하면서 슬픔과 즐거움, 흥취와 정취가 도사린다. 춤의 흐름에 따라 얼굴이

나 눈의 각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팔을 어느 방향으로 올릴 것인가, 부채를 펼 때의 소리와 부채로 얼굴을 가릴 때의 호흡, 부채 끝이 천장을 향했을 때의 시선과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계산하여 무대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킨다. 와이셔츠 차림에 하얀 손수건 하나만 들고도 그는 한을 다스리고 추스르는 살풀이춤을 춘다. 그리고 어떤 춤을 추든 한번 춤추기 시작하면 한순간도 지루감이 없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매력이 넘친다. 악기 편성은 한량무의 경우 대금, 거문고, 아쟁, 징, 장고, 가야금, 구름으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현장연주를 곁들인다.

1986년 이후 10년 만에 마련한 1996년 개인 발표회에 왔던 재미 무용평론가 이병임은 "세련되고 정겨운 조흥동의 무대 매너는 모처럼 무대에서 귀인을 만났다는 반가움을 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무용평론가 김태원도 월간 『춤』(1996년 12월호)에 "그의 〈회상〉은 신무용의 2세대들인 김백봉의 부채춤이나 장고춤, 김진걸의 산조와 같은 신무용 레퍼토리의 한 흐름 속에 넣어도 무방할 만한 격과 작품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농악패 따라다니며 춤에 빠져들던 소년

조흥동은 1941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다. 조태환(趙泰煥)과 김음성(金陰成)의 5남매 중 막내. 그는 춤출 수밖에 없는 기질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집안은 예술과는 무관한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다. 부발읍 부농이던 부친은 딸 넷을 낳고 백일기도 끝에 얻은 외독자라서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을 만큼' 온갖 기대와 사랑을 담아 귀하게 키웠다. 부친은 아들이 장래 큰 사업가나 판검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추수 때가 되면 동네를 돌던 농악패, 두레패에 따라다니고 누나들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춤추기를 좋아했다. 사당패의 목말을 타는 무동이 되면서 그는 자신이 춤추는 사람이 될 것을 그때부터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전혀 춤출 수 없는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완강한 부모의 반대가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



는 몇 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도 끝내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셨다. 운 좋게도 좋은 스승들을 만나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이만큼 와 있지만 아마 그렇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쯤 계

룡산 밑에 가서 박수무당이라도 되어 춤추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는 1980년대 한 신문과 춤에 대한 그의 열정과 집념을 토로한 내용이다. 아들이 춤추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버지 몰래 아들을 도와주던 어머니는 1993년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다. 그는 유년 시절 춤으로 날리던 엄영연, 조태호 등 어른들이 부채를 들고 추는 한량무를 보았고 1949년 여덟 살 되던 해 초립동으로 첫 무대에 서면서 무용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중학교 입학과 함께 서울에 온 그는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둘째 누나네 집에서 학교에 다녔다. 당시 비원 근처에는 국악양성소(현 국립국악원)가 있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그는 양성소 창가에 붙어 서서 무용가 김보남이 춤추는 모습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보곤 했다. 경동중 1학년 때 무용연구소에 입소했고 집에서 보내온 학비와 용돈 중 용돈은 무용소에 가서 춤을 배우는데 썼다. 아직 고교생의 몸으로 1959년 원각사에서 열린 김윤학 무용발표회, 이듬해 안애리 무용발표회에 출연하는 등 스승들이 소개해 준 크고 작은 공연에 참가하면서 일찍이 무용활동을 펴왔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부모의 지시대로 공대에 지망했다가 불합격한 뒤에도 부모는 재수를 해서 법대에 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는 부모 몰래 무용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교수로 있는 서라벌예대 체육무용과에 들어갔다.

아침에는 학원에 가는 체하고 집을 나와 서라벌예대에 다녔다. 1962년부터 국립무용단 제1회 정기공연에 출연, 송범의 <백의 환상> <쌍곡선> <검은 태양>, 강선영의 <산제> <열두무녀도> 등에 계속 출연하는 동안 남성 무용수

가 드물었던 무용계는 그의 범상치 않은 재주를 보고 장래 한국 무용을 이끌어가길 유망주로 손꼽기 시작했다. 이 무렵 동생이 춤춘다는 소문을 듣고 누나들이 국립극장 분장실로 찾아와서 무대에 입고 나갈 무복을 불사른 일이 있고 부모와 대소가 일가친척들이 몰려와 집안의 대를 이을 외아들이 춤을 추는 것을 극구 말리려 들었다. 완강하게 고집을 꺾지 않고 “나는 죽어도 춤추겠다”고 뿌리치자 부모는 하는 수 없이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아들에게 모든 결정을 맡겼다.

당시로서는 남자가 춤추는 것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캠퍼스를 지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남자가 춤춘다”고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본래 말수가 적은 그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져서 대학 시절은 남의 시선을 피해 머리를 숙이고 다닐 만큼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만큼 그의 춤 수업 과정은 외롭고 고독한 도정을 거치고 있다. 서라벌예대 졸업 후 중앙대에 편입, 부모의 소원대로 일시적으로 법학도가 되기도 했으나 “춤의 길이 까마득히 먼 길인 줄 깨닫고” 그때도 춤 공부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일단 대학은 법대를 졸업했다. 1964년 중앙대 졸업 후 동명여고에서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쳤다. 이후 해외공연단의 일원이 되어 동남아 6개국을 순회하고 돌아와서 그는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1966년, 서대문에 조흥동 무용학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받는 교습비만으로는 연구소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몇 달씩 임대료가 밀려 고생하는 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18년 동안 6차례나 연구소를 옮겨 다녔다.

전통 춤사위 섭렵하며 자신만의 춤 세계 이뤄내다

그는 한국의 전통 춤사위를 빠짐없이 섭렵한 무용가이기도 하다. 유형별 유파나 계보별로 다양각색의 춤사위를 거의 점유하여 사사한 스승만도 무려 20여 분이 넘는다. 초기의 김보남과 남산의 주만항 외에 김진결과 송범 문하에서 예술가의 창조정신과 창작춤의 기법을 배우고 강선영의 태평무를 비롯 김천홍의 처용무와 춘앵전, 한영숙의 승무와 살풀이춤, 이매방의 승무와 오고무, 은방초의 살

풀이춤과 무당춤, 전사섭의 설장고, 황재기의 소고무, 장홍심의 장검무와 바라춤, 박용우와 이지산에게 진쇠춤, 김백봉의 부채춤, 사교춤에 능했던 김윤학, 굿으로는 김석출의 동해안 별신굿, 안사인의 제주굿, 우옥주의 황해도 만구대택굿, 임준동과 박송암 스님으로부터 불교의식 무용을 차례로 배웠다. 그리고 1992년 전통 체득의 긴 여정을 끝내고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가 됨으로써 지금은 한성준류를 계승하고 있는 강선영에게 정착되어 태평무 보존회 회장으로 있다.

그는 스승에게서 배운 전통춤을 그대로 추기보다 원형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주관에 강하게 주입시킨 자기 식의 춤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춤을 바탕으로 한 작품 중 태평무는 스승 강선영의 화려한 겹걸음과 잔걸음 등 발디딤새의 기교를 살리면서도 왕비의 춤을 위주로 하는 스승의 춤과는 달리 구도나 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대형화된 군무를 통해 왕비와 왕이 함께 추는 춤으로 음악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대무용적인 분방함과 궁중무용의 내밀한 품위를 적절히 조화시켜 발을 들었다 올리고 차듯이 엇비키는 울동은 리듬과 동작의 틀을 깨면서 열박장단 돌림채로 눈부시게 휘돌아간다. 왕과 왕비의 2인무, 24명의 군무, 다시 원삼과 한삼을 벗고 당의 복색으로 10명의 여성군무가 등장하는 무대는 “조흥동만의 남성적인 양식을 가미하여 태평무를 학구적으로 개척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조한춘의 뺨파리춤을 개작한 진쇠춤도 경기 도당굿 제석거리에서 추어진 원형을 바탕으로 하면서 국태민안과 시화연정으로 신을 불러들이고 신들로 하여금 잡귀를 뿌리치게 하는 극적 요소가 강조된다. <초립동>은 초립에 짚신, 행전을 차고 천진무구하게 노니는 소년 시절을 그린 춤, <간영>은 김백봉의 부채춤을 원천으로 하여 일렁이는 파도와 햇빛이 퍼지는 듯한 빛살무늬를 군무부채로 장식해 낸다.

창작춤 중 <남성 3대>는 현존하는 조흥동작계 3대의 맥을 잇는 춤이다. 전통춤의 흐름과 맥을 한 무대에서 정확한 무용어법으로 해석하기 위해 조흥동이 제일 먼저 1대를 추고 그의 수제자인 김정학이 2대, 그리고 3대는 김정

학의 제자인 정명훈·박성욱으로 이어지는 구도를 보인다. <화담시정>은 황진이的一生 중 서화담과 황진이의 시적 연정을 그린 작품이고 그 외 장고춤, 살풀이춤, 호적시나위 역시 수없이 손질되고 다시 짜여져 호남의 지방적 교태미나 영남의 투박한 맛과는 달리 사색적 미선(微線)으로 정중동의 여백을 살린다. 예의 그는 모든 춤에서 “춤을 위한 춤, 미를 위한 미”를 위한 일종의 유미주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무용가·안무가·무용행정가로서 각 예술지에 나타난 그의 춤 정신은 1997년 『현대예술』지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하나의 테마를 찾아내면 핵심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번 작품의 가장 주된 특징은 어디에 둘 것인가, 그에 대한 깊은 관찰과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다. 즉 움직임, 습성, 내적 사상, 숨어 있는 모든 함수와 변수를 찾아 투철하게 연구한 끝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작품을 탄생시키게 된다. 춤을 형성하고 나면 공간 구성에 들어가고 공간 구성에서는 신체상에서 오는 비정지 상태와 정지 상태, 음악, 조명, 장치, 소도구, 분장, 무대에 함께 서는 무용수들의 일거수 일투족과 무대에서의 세밀한 기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는가를 면밀하게 점검한다. 기교의 나열은 예술일 수 없다. 춤추는 사람과 춤을 감상하는 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객은 관객대로 실망하고 춤추는 사람은 무의미한 춤을 추게 될 뿐이다.”

그는 “한 송이의 장미꽃은 누가 보아도 장미”이어야 한 다면서 “무용이란 육체의 조직에 의한 움직임이 주가 되는 것이기에 이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어떠한 다른 보조가 이것을 대신 움직여줄 수도 없다”고 말한다. 육체의 움직임은 단순한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표현의 움직임이고 동시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특히 강조한다.

국내 최초 남성 무용단 창단, 남성춤의 신기원을 열다

1968년 첫 발표회에서 그는 <귀향> <선화무> <고풍의 연가>를 보이면서 ‘무용계의 혜성’으로 떠올랐다. 이때



왼 쪽 · 1991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명무전에서 조흥동의 태평무

오른쪽 · 2002년 3월,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춤입문 50년 기념, 조흥동 춤의 세계' 공연작품 중 〈초립동〉

한국 춤계에서는 흔치 않게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라는 사실이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의 전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뒤를 이어 춤을 추던 세습무가 대부분이고 196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무용에서는 고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흔치 않았을 때였다. 첫 발표 후 1년 만에 제2회 발표회, 1972년에 제3회 발표회를 가졌고 줄곧 개인 활동을 하다가 1974년 한국무용협회 창작제에 〈제신의 고향〉, 1976년 학림회(學林會) 창단과 함께 〈이차돈〉, 제1회 대한민국 무용제(1979년)에 〈푸른 흙의 연가〉로 참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남성 무용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그가 남성 무용단을 창단한 것은 “남성들이 추는 춤을 왜 여성처럼 추어야 하는가”라는 회의에서 남성적인 춤을 추고자 한 것이 이를 발족하게 되었다. 남성 무용단의 이름으로 1981년 대한민국 무용제에 〈춤과 혼〉을 안무하고 춤추면서 “한국 남성춤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과 함께 그해 영예의 안무상을 수상했다. 여성천하의 무용계에서 열악했던 남성 무용수로서의 좁은 입지를 극복하고 그는 이제로부터 자기만의 독립된 춤 세계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시상식에서 당시 한국문예진흥원장 송지영은 “우리나라 남성 무용수가 언제부턴가 여성화 아니면 중성화가 돼버린 흐름 속에서 조흥동의 춤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그의 춤은 남성 무용수로서 갖춰야 할 활력과 기백이

넘친다”고 상찬해 마지않았다. 남성 무용수로서의 수모와 설움을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배움을 청하는 가난한 춤꾼들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는 나이 40세에 제자들이 도열해 있는 국립무용단 신입단원 모집에 응모하여 또 한 번 무용계의 화제가 되었다. 국립무용단 공연에 참가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지만 1980년 뒤늦게 국립무용단에 입단하여 단원 신분으로 첫 작품 〈맥(脈)〉을 안무하여 무대에 선보였다. 이 작품은 설화나 민화를 주제로 꾸며지던 기존의 국립무용단 스타일과는 달리 “무용이지만 극적인 요소를 많이 지닌 획기적인 작품”으로 무용계뿐 아니라 연극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로 인해 1년 만에 지도위원이 되었고 그로부터 승승장구하면서 한국무용협회 부이사장, 국립무용단 초대 상임안무가, 무용협회 이사장에 선임되는 등 그는 무용행정가로서의 면모와 영역을 넓혀나갔다.

국립무용단 시절은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창작무용극 형식으로 그의 열정을 마음껏 불태운 시기다.

1993년 송범에 이어 2대 단장이 된 그는 민속춤을 다양한 춤짓으로 표현한 강강술래, 생의 비탄을 미래적으로 승화시킨 창작무 〈운누리를 꽃밭으로〉, 백제의 혼을 담은 무영담의 〈환(幻)〉, 상고시대 제천의식 과정을 그린 〈무천의 아침〉을 안무해 내놨다. 이때는 평단으로부터 “국립무용단이 한층 젊어지고 있다” “다른 무대보다 남성적인

활력이 넘친다” “극적인 요소가 화창하다”는 평에 둘러싸였다. 1997년 서울예술단 총감독이 되자 민족의 한과 역사에 대한 아쉬움을 한과 살로 푸는 <비나리>, 2000년 경기도립무용단 예술감독이 되자 <연인> <황진이>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화합의 빛>, 신라 마지막 왕자 <마의 태자> 등으로 우리 춤의 역동성과 신명, 그윽한 정조가 담긴 일련의 창작무와 무용극 등 30여 작품을 창작했다. 그 외에도 비상, 산조, 초혼무 등을 망라하여 여러 작품을 추면서 산조의 경우는 대금산조, 빠른 산조, 수건산조로 세분화하여 추고 있다.

1983년 국립무용단의 ‘우리 춤 우리의 맥’ 이후 그는 최근에는 우리 춤의 맥을 거슬러 짚어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맥’ 시리즈 공연에 집요하게 매달려 있다. 1996년 ‘조흥동 춤의 세계’, 1997년 서울예술단의 ‘천년의 춤 그 맥’, 경기도립무용단의 ‘우리 춤 그 맥 2000’, 2002년 ‘춤입문 50년 기념, 조흥동 춤의 세계’, 2003년 ‘조흥동과 함께 하는 우리 춤의 맥 시리즈 1’ 등이 그 예이다.

2002년 3월 15일, 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가진 ‘춤입문 50년 기념, 조흥동 춤의 세계’는 50년을 춤추고도 “죽는 날까지 춤만 추고 싶다”는 춤에 바친 한평생을 한국 무용의 현대사로 집대성한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여기서 그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태평무와 진쇠춤, 한량무와 남성 3대, 초립동을 정리하여 자신이 직접 추었고 우리 시대가 거처온 춤의 맥과 춤이 변이되는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차범석은 이 프로그램에서 “남성 무용가가 드문 현실에서 조흥동의 춤 세계는 확고부동하다. 우선 그의 신체적 조건이 가장 알맞다는 외적인 인상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활력과 절도와 여운이 잘 어우러져서 높은 기품마저 느끼게 하는 한량무는 거세된 중성화가 아닌, 한국 춤의 남성미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쓰고 있다.

그의 춤은 스스로를 위한 축연(祝宴)으로서 “말없이 자기 춤의 실체를 보여준 춤은 그를 빼고는 한국 무용사를 말할 수 없다”는 평론가 정병호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

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타고난 춤태와 춤기(舞氣)의 도도함, 장단과 장단 사이를 넘나드는 장단에 대한 해석, 연륜이 쌓인 연기력은 이 시대의 최고의 춤꾼으로 그를 지칭하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한국 무용의 맥을 지키는 무용계의 대들보

그는 2001년 1월,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에 네 번째 선임되었다. 지난 1991년 제15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16, 17대는 경선을 통해, 18대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협회 내규에 따라 무투표 당선했다. 이에 따라 그는 무용협회 사상 처음으로 4기를 연임하는 최장수 이사장이 되었다. 한국 선비정신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정통적 남성춤의 맥을 잇는 적자(適者)로서 그는 잠잠 시간도 없을 만큼 온갖 정열을 바쳐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좋은 일에는 늘 마장이 드는 법으로 모든 일이 언제나 순조롭고 평탄치만은 않았다. 제15대 무용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국수호 전 중앙대 교수와의 치열했던 선거전과 장기집권에 대한 안팎의 수군거림, 개인적으로는 8년 전 여고에 다니던 꽃 같은 딸을 교통사고로 잃는 남모를 고통을 겪었다. 무용협회 이사장으로서 크고 작은 정부 차원의 대형 행사와 공연을 주도하고 2001년에는 문예회관(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강선영의 태평무, 이매방의 살풀이춤, 김백봉의 부채춤, 김진걸의 산조, 최현의 비상 등 명인들을 초청하여 명작무 공연을 개최하는 등 우리 춤의 맥을 지키는 성의를 실천해 보였다.

근면성과 성실함으로 그는 누가 뭐라던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자신의 춤을 추는 등 무용가가 춤 잘 추는 바에야 아무런 할말을 잃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도 겉으로 보기엔 유세를 부리거나 세련된 티를 내지 않고 잔잔한 관육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시종 여일 정겹고 반기면서도 불가원 불가근의 묘한 분위기를 흠뻑리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한 강선영·김백봉·이매방 등 까다로운 원로의 총애를 받고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호감을 사고 있다. 지난해 아직 60이 갓 넘은 나이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선임된 것도 평소 예술적 공로와 실적은 물론 대인관계



왼 쪽 ·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92호 태평무 이수자로
 지정된 태평무
 오른쪽 · 쇠를 들고 추는 신명 한
 마당 진쇠춤의 조흥동

에서의 신뢰와 책임감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족은 같은 경기도 이천 출신인 박상수(朴尙洙)와의 사이에 남매. 부인은 흥대 미대를 나와 1994·1999년에 개인전을 연 동양화가이고 장남 조용규는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전문가. 부인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춤과 함께 사는 남편을 언제나 말없이 내조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대학무용콩쿠르안무지도상(1975년), 대한민국무용제안무상(1981년), 서울특별시문화상(1992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95년), 문화훈장 목련장(2000년)을 받고 “한국 춤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11월, 경기도 이천시 문화예술상을 수상, 지난해 이천시가 기증한 터에 무용박물관을 짓고 있다. 현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경기도립무용단 예술감독, 한국예총 부회장이자.

조흥동 춤의 세계만은 꾸밈 줄도 수를 쓸 줄도 모르고 뒤로 돌아서면 표리가 다른 이중성도 찾아볼 수 없다. 눈에 띄게 나대거나 큰소리를 치지 않고 운신의 폭이 조용하기만 한 그가 어떻게 평탄치 않은 무용계를 10년 이상 이끌어올 수 있었는지, 보이지 않는 저력의 끝을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는 상대방의 의견에 개입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을 소리 없이 관철시키는 묘한 카리스마로 무용계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동료들

을 감싸안고 그들은 한결같이 그를 두둔하면서 그의 움직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동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에겐 아름다운 춤이 있고 그의 공연이 단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춤에 대한 대외적인 반응은 2001년 10월, 삼청동 삼청각에서 열린 원로 희곡작가 차범석 연극인생 50주년 기념공연에서 그가 춘 한량무를 보고 소설가 이호철이 “어쩌면 남자가 저처럼 아름답게 춤출 수 있느냐?”는 감탄이 이를 입증한다.

그는 지금도 춤사위 하나하나를 허투루 다루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드러움과 고여 있는 향기를 길러내듯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춘다. 결국 다시 태어나도 춤꾼으로 살아갈 그의 운명은 서정성과 무위적정(無爲寂靜)을 넘어 지금은 몸짓 한가운데 힘의 원천이 있음을 꿰뚫는 신선한 춤으로 관객의 시선을 언제까지나 사로잡게 될 것이다. 🌈

이세기 약력

- 이화여대 및 대학원 졸업
-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현대문학』 소설 추천
- 『서울신문』에 '이세기의 인물탐구'(1992~1999) 연재
- 『대한매일』 논설위원, 본지 편집자문위원 · 한국간행물위원회 심의위원
- 창작집 『바람과 놀며』, 『그 다음은 침묵』, 김옥길 평전 『자유와 날개』 외
- 현대문학상 · 서울언론인클럽 신문칼럼상